조직검사 대신 찬양하기와 듣기

(시편 148:1~14)

1.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3.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4.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5.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시므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6.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조직검사 대신 찬양하기와 듣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조직검사 대신 찬양하기와 듣기'
조직검사와 하나님 찬양이 어떤 맥락에서 비교될 수 있을까요?
아시는 대로 조직검사는 생체조직을 일부 떼어내서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암을 검사할 때에 이 조직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위나 대장 등에서 조직을 떼어내서 암을 검사합니다.
한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된 우주도 생체와 같습니다. 태양계와 같은 은하계로부터 이 지구 위에 있는 벌과 나비 같은 작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의해서 관통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개체마다 하나님의 주체성이 관통되어 있고 수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체성이 관통되어 있는 세상에서 인간만이 별도로 자아를 가지고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필연적으로 죄악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개체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일관되게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관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체성을 수용하지 않고 나 스스로 주체가 되어버리면 나타나는 일이 죄악입니다.
이 피조세계 전체는 하나님의 주체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생체와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피조세계에서 조직을 떼어내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으셔서 살점이 다 떨어져나갔습니다. 채찍 끝에는 낚시 바늘 같은 쇠붙이가 달려있어서 채찍을 칠 때에 채찍은 몸을 휘감

고 쇠붙이가 살에 박힙니다. 이때에 채찍을 확 잡아당기면 살점이 뜯겨져나갑니다. 이러한 모습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관통되고 있는 피조세계의 조직을 뜯어내는 모습 같습니다. 그렇다면 뜯어내기만 하는데 조직검사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날씨가 안 좋으면 '날씨가 왜 이 모양이야?'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주관하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며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에서 날씨라는 조직을 떼어내서 내 능력과 판단을 기준삼아 평가하고 검사한 것입니다. 이게 조직검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쉽게 평가합니다. '저 사람 참 못생겼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의 외모라도 하나님의 주체성이 담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체성 때문에 그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의 판단과 생각으로 외모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마치 의사들이 생체를 떼어낸 후에 암을 판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직검사가 일상이 되면 나타나는 증세가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 찬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와 들판에 핀 백합화에서도 하나님의 주체성을 보셨습니다. 또한 사사건건 반대하고 방해하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주체성을 보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나, 십자가에 매달도록 허락한 로마 총독 빌라도나,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나, 당신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에게서조차 하나님의 주체성을 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내버려두심, 하나님의 악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역이용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등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이 다양한 표현방식을 통해 드러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이 주체성은 찬양과 직결되어 있기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체성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시를 보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들이 힘을 다해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천사나 사람들에게 하나님 찬양을 촉구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3~13절에 보면 천상세계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 세상의 모든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 여호와의 이

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바다의 용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용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탄을 상징하는 용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피조물들이 사람처럼 소리 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입도 없고 말할 줄도 모르는 피조물들이지만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 찬양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들을 수 있을 때에 완성됩니다. 찬양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바른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직업적이고 예배의식에 따라 순서에 맞춰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찬양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인은 광풍이 불 때에 지나가는 바람에서도 하나님의 찬양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한 것입니다.

가수들이 노래를 할 때에 혼자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기뻐할 때에 비로소 가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쁜 찬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찬양하기와 찬양듣기가 가능할까요?

5절을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시므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곧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체성의 표현입니다. 피조물 하나하나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주체성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와 세계가 하나님으로 관통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조물들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충만함이 보이고, 온 세상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들립니다.

힌두교의 한 스승이 제자에게 무화과 열매를 주면서 그것을 갈라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 안에서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는 "수많은 씨가 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그 조그마한 씨 하나를 다시 열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제자가 아주 세밀한 작업을 통해 그 씨를 쪼개자 다시 스승이 "너는 그 안에서 무엇을 보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네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부터 이 커다란 무화과나무가 자라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지 못했기에 나무를 자라나게 하는 근원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밖에는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씨에서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존재합니다.
주님께서는 백합화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명령을 보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포함한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주체성을 느낄 수 있다면 광풍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날씨를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날씨가 왜 이 모양이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체성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즉 세상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주체성으로부터 한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주체성이 드러날수록 이러한 경향은 강해집니다.
사업이 망하더라도 나쁘다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과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에는 하나님의 주체성이 관통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호불호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부터인가 손목이 불편합니다. 특별히 다친 기억도 없는데 움직일 때마다 아픕니다. 그런데 '손목이 왜 이 모양이지?'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까지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손목이 왜 이 모양이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곧 피조물로부터 하나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이렇게 찬양하기와 찬양듣기를 통해 완성이 됩니다. 이 찬양은 곧 하나님의 주체성을 온전히 수용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숨겨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온 우주에 참 자아가 하나님 한 분 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아의 주체로서 삶에 우뚝 서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아에 자발적으로 수용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인격적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주체성이 비인격적으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풍이 불 때에는 먼지도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주체성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원인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이유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이를 단순히 불평하기보다는 미세먼지를 통해 나 개인의 마음의 혼탁함과 교회의

영적 혼탁함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계시적 사건은 아닌지를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했습니다.
지금 고난주간인데 십자가를 밝히 보고 있습니까? 온 나라가 미세먼지에 갇힌 것이 우리의 흐릿한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주체성이 무엇일지 생각해 볼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적으로 그것의 호불호를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세계에서 한 조직을 떼 내어 검사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체성과는 별도가 되어버린 나의 주체성을 주장하는 것이 곧 죄악입니다. 이러한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는 살점이 찢어져나가는 고통을 겪으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은 세상에 대한 나의 주체성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소원하는 나의 주체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주체성을 죽이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몸속의 실핏줄에 피가 흐르듯이 하나님의 주체성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가득 차고, 온 우주의 유일한 자아이신 하나님의 자아를 수용할 때에 피조물로부터 하나님 찬양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무엇을 보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체성이 표현되고 있음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미세먼지 안에도 있습니다. 몸에 암이 생기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은 곧 사랑이고 인자하심이고 자비하심입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겨도, 가족에게 문제가 생겨도, 미세먼지가 있어도, 경제가 안 풀려도 하나님의 주체성의 표현입니다. 내버려두심도 하나님의 주체성의 표현입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버려두셨거나 역이용하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악한 자의 활동까지도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의 한 부분으로 삼으셨던 것과 같습니다. 커다란 은총의 단계를 위한 전단계로 설정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주체성에 감사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제가 손목이 아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제가 얻는 교훈은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온전치 않다는 반성입니다. 아직도 손을 대려고 하는 일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손버릇이 나쁜 소매치기하는 사람들이나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손목을 자르기 전까지는 이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저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서 손목에 이상이 생겼다면, 이 상태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손목에 이상이 생기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체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에 맞아 죽게 하심에서 열린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모하신 모습을 보자 산 아래에서 강렬하게 꿈꾸던 이상과 비전을 모두 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보이는 상태에서는 몸이 죽는 것도 대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은 설령 몸이 죽는 순간에서조차 오직 사랑이기 때문에 순교 현장에서도 찬양과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인 조직검사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에 관통되는 이 피조세계에서 '나'라는 별도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이상적인 상태를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피조세계에서 끊임없이 조직을 뜯어내는 조직검사의 삶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삶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한 나의 주체성을 완전히 죽은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소원 계획 등도 세상을 향한 나의 주체성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관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달인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나가는 바람에서도 하나님 찬양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기의 달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조직검사의 달인의 삶을 중단하고 찬양하기와 찬양듣기의 달인들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